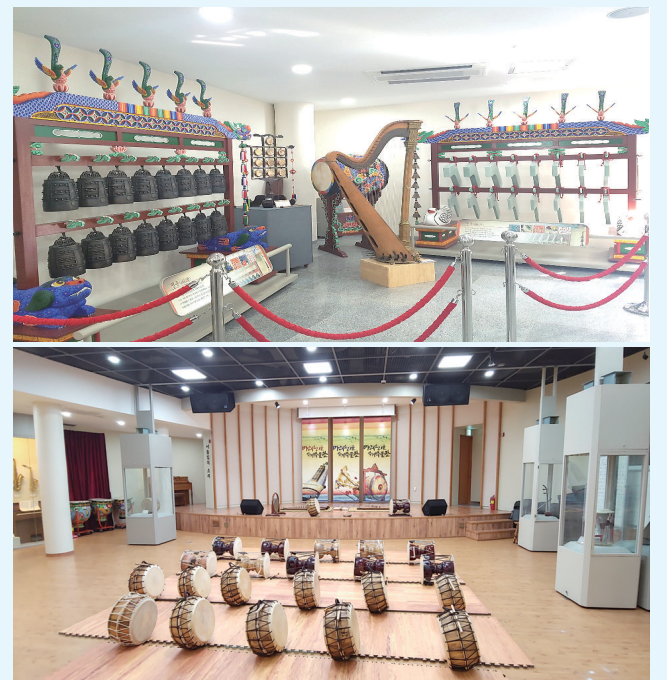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서석면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국내외 악기 100여점 시대별로 분류 전시



◇ 2007년 개관한 서석면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에는 인간문화재가 사용하던 악기 등 1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2007년 개관 전통음악 이해, 지식 습득 산실 역할 사물놀이 체험, 문화강좌 등 다채 단체방문객 많아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한국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의 산실 역할을 위해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악기 박물관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악기는 홍천군에서 구입한 것과 인간문화재 및 명인들이 사용하던 악기 그리고 악기 장인들로부터 기증 받은 것으로 전시되었다.

건립된 박물관에는 악기 전시뿐 아니라 풍물, 무용 등 우리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문화강좌와 체험, 공연, 세미나 등 다목적 문화센터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전시장 가운데 마련된 실내 공연장에서는 각종 전통 국악 공연 등이 펼쳐져 가족 또는 단체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청정한 산골에서 음악을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곳

2007년 11월 16일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에 개관한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마리소리길 207
- 체험안내 : 풍물, 무용 등
- 주차시설 : 주차 가능
- 쉬 는 날 : 명절당일, 매주 월요일
- 이용시간 : 09:00~18:00
- 홈페이지 : <https://www.great.go.kr/index.asp>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전통음악을 오늘에 되살린 서원대학교 음악과 이병욱 교수가 터를 기부하고, 홍천군이 그 뜻을 함께 해 건축예산을 지원하여 세워지게 되었다.

이곳은 홍천 시가지에서 국도 44, 56호선을 타고 30분가량 달린 후 검산보건진료소와 서봉사 계곡을 지나 10여km를 더 들어 가다보면 용오름계곡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 속

에 지상 2층(총 면적 517㎡)으로 건립되어 작지만 알차게 꾸며져 있다.

박물관에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편종 등의 국악기 70점과 인도네시아의 전통악기 안골룽, 콘트라베이스, 크로마하프, 칸들 등의 서양악기 32점 등 모두 102점의 국·내외 악기들이 각각 분야별 및 시대별로 분류하여 전시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악기에 대한 역사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을 활용하여 각종 전통국악공연과 국악체험프로그램, 문화교실(풍물, 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행사나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져 나가고 있다.

10인 이상의 단체로 사전 예약하여 방문하게 되면 각종 악기와 사물놀이 체험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박물관 직원이신 이창임(57세)씨의 친절한 귀뜸이 꼭 다시 찾아오게 하고 싶은 곳, 민족의 혼이 담긴 소리와 그 울림 속에 박물관 뒤편의 숲길을 거닐며 자연과 함께 호흡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듯하다.

조하경 기자



CONTENTS



02 - 경로당 탐방 시리즈
03 - 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04 - 우리 마을,
스포츠
05 - 문화예술

06 - 자원봉사단체 소개
07 - 독자기고
08 - 하루 시 한 편



노래·치매예방교실 운영... 69명 회원 한가족 한마음

매년 봄 야유회 개최 화합 다지며 건강 기원
에어컨 용량 부족 여름이면 고통 교체 바라



◇남면 양덕원2리 경로당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남면 면소재지에 위치한 양덕원은 1리와 2리, 2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양덕원의 유래는 조선시대 역참(驛站)과 원(院)이 있었으므로 양덕원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장터, 뒷모퉁이, 앞버덩을 병합하여 양덕원(陽德原)이라 하였다.

경자년 새해 들어 첫 방문한 양덕원2리 경로당은 변순근 회장(77세)이 8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회장임기가 2년인데 이렇게 계속 연임을 하는 이유는 회원들이 연로하여 회장직을 수행할 마땅한 분이 없어서라고 한다.

사무장은 김부녀 할머니(75세)가 수고를 하고

계시고 회원은 69명으로 최고령 어르신은 94세이신 신현숙 할아버지이고, 남분례 할머니가 92세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노인회 가입비는 2만원이고 1년에 12,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노인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대다수가 토박이어서 단합이 잘되고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식사준비는 1조에 2명씩 정해 돌아가며 식사당번을 하고 있다.

경로당에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어 무료하기는 하지만 2019년에는 노래교실과 치매교실이 운영되어 그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치매예방교육도 받아 좋았다고 하라며 새해에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매년 봄에 야유회를 다녀오고 여름에 삼계탕으로 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경비는 주로 마을주민 및 회원자녀들의 찬조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연로한 회원들이 많아 경로당 재원마련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인회기금을 500만원 정도를 모았다고 한다.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는데 에어컨이 용량이 부족하여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서 지내기가 어렵다고 하신다.

새해 에어컨을 한 대 설치해 줬으면 하는 타 경로당에 비해 소박한(?) 애로사항을 경로당에 모여 있는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신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남면 소개

▲ 남면 현황

- 면사무소 위치 : 25108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97
- 연락처 : Tel(033)432-4004, FAX(033)432-7377
- 면적 : 120.4km²
- 행정구역 : 법정 11개리, 행정 21개리, 84개반
- 양덕원리(1~2리), 남노일리, 명동리, 시동리(1~5리), 신대리(1~2리), 용수리, 유목정리(1~2리), 유치리(1~2리), 월천리(1~2리), 제곡리, 화전리(1~3리)
- 인구 : 6,290명(2017.4.30일 현재) 2,974가구

▲ 연혁

- 1995년 01월 01일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시동 3리를 시동3, 5리로 분할
- 1983년 02월 15일 상오안리를 홍천읍에 편입
- 1973년 07월 01일 상창봉리를 횡성군 공근면으로, 북방면 노일리 일부를 남면 남노일리로 편입
- 1925년 홍천군 남면으로 개칭
- 1895년(고종32년) 금물산면
- 1018년(고려현종9년) 홍천현
- 신라시대 화산현 • 고구려시대 벌력천현

▲ 지역특성

- 지역특성 : 강원도의 관문으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횡성군 공근면 경계지역

- 3개 군부대 주둔지 : 기갑여단, 기계화여단, 기계화보병사단포병여단
- 전형적인 농업지역 : 농산물 출하가 관내 읍·면 중 가장 용이
- 관광자원 : 홍천 9경중 제4경인 금학산과 금학산 아래 태극문양의 남노일리 홍천강변 백사장 등 피서철 관광소득개발 자원 보유
- 양덕원 5일장(4, 9, 14, 19, 24, 29일)
- 화전2리 농공단지
- 도내수출1위 최첨단 의료기기 생산업체 삼성메디슨 홍천공장
- 양덕원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면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관공서 전화번호

- 남면사무소(432-4301), 보건소(432-4143), 우체국(432-4001), 소방서(432-4119), 서홍천농협(432-3880~1), 예비군면대(432-8116), 파출소(432-4112)

▲ 도로교통

- 남면 소재지인 양덕원 주위로 홍천과 양평으로 통하는 국도 제44호선이 지나고 서면과 시동리, 횡성군방향으로 지방도 제494호선이 통과한다.

▲ 대중교통

- 양덕원터미널에 금강고속의 동서울-양평-홍천간 시외버스와 홍천종합버스터미널과 남면 및 서면 각지를 잇

는 홍천군의 농촌 버스가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 하루 5회 용문버스터미널, 1회 횡성읍으로 가는 농촌버스가 운행한다.

▲ 양덕원천

- 금물산 북쪽에서 발원한 수계가 시동리, 신대리를 지나 양덕원리에 이르러 매봉산 동쪽 화전리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온 수계를 합류하여 구비를 이룬다. 북쪽으로 흐르다가 유역에 약간의 하곡평야를 이루고 남노일리에 이르러 홍천강으로 흘러든다.

▲ 양덕원리사지(陽德原里寺址)

- 양덕원리사지는 남면 양덕원리의 태신빌라 인근에 위치한다. 절터서쪽에는 양덕원천이 흐르고, 동쪽에는 낮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고 강원도 문화재인 3층 석탑이 있었으나 2005년 9월 15일에 도난당했다고 한다. “조선보물조사자료”에도 온전한 삼층석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후기에 조성된 듯하며 석탑이 있었던 곳에 지대석이 현재 남아 있으며, 유물로는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에 이르는 어골문, 사선문, 와편 등의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다.

▲ 금물산

- 해발 775.5m로 횡성군 서원면과 경기도 청운면, 홍천군 남면 경계에 위치하며, 금물산의 북쪽사면의 산간 분지에 남면 신대리와 시동리, 유치리가 연속적으로 위치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금융 리터러시(Literacy) 왜 필요한가

- 은근히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

‘한국은행이 국고채 매입을 늘리고 기업 대출 창구를 넓히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기준금리 변동 외에 유럽과 일본이 도입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연구에 나설 뜻도 공식화했다.’ <한국경제, 2019.12.27.>

대외적으로 경제·사회·인구 측면에서 전방위 피크 쇼크(peak shock)가 나타났다. 미국투자은행 BoA 메릴린치는 내년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0년대는 정점시대(The 2020’s is the decade of peak)”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제가 총수요 위축으로 공급 과잉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2019.12.25.>

위의 글들은 경제 관련 기사이다. 이 기사 내용들은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글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경제 용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경제 관련 용어들이 전문용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말한다면 그것은 경제, 금융 교육 부재 탓이다. 즉 경제, 금융에 대해 교육받고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 금융과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돈과 관련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 표현을 듣게 된다. ‘돈이 인생의 전부냐’, ‘사람 나고 돈 낄지, 돈 나고 사람 낄냐’,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돈을 밝힌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등. 하지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돈이 말한다(Money talks)처럼 돈의 중요성과 돈의 힘으로 읽히는 표현도 있다. 사실 인간은 재물에 대한 욕망의 DNA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돈에 대한 긍정적 욕망이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동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중요하고도 요긴한 경제이지만 정작 우리들이 경제와 금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에 첫발을 들이고서이다. 학생 시절에 금융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에 비하면 참으로 무지하고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아직도 경제와 금융이 낯설다고 느끼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금융(金融) 문맹을 탈출하여 **금융 리터러시(Literacy)***에 도달하고 금융에 친숙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은 한마디로 금전의 유통이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 돈을 빌려주어 이익금을 얻고, 돈을 빌려와 더 큰 이익을 낸다. 돈을 통한 재화의 창출이라 할 수 있다. 금융 이해는 경제라는 커다란 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즉 경제의 문을 통해 들어가 경제를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다.



실제로 매일 매일 우리는 경제라는 공기를 호흡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알리는 노력은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며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았다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성장 축소 시대에 경제와 금융 지식을 내 손안에 넣을 필요성이 아주 커졌다. 이제라도 학습이 필요한 순간이다. 경제 공부는 사실 나무 줄기에 가지를 처가듯이 확장시켜나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조금 조금씩 가지를 쳐 가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많은 가지가 퍼지고 그 가지에 꽃이 피는 경제 지식이라는 나무를 갖게 될 것이다.

- 금융 지식 쉽게 얻기

정보를 습득하는 두 유형이 있다. 활자를 통해서 습득하는 유형과 들어서 습득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유형도 있다.

우선 전자의 유형이라면 경제와 금융에 관련된 서적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 시작은 아주 쉽고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좋다. 최근기의 <지금 당장 경제 공부 시작하라>, 정지은·고희정의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정선영의 <금융을 모르는 그대에게> 등이 읽기 좋고,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현대경제연구원(www.hri.co.kr), LG경제연구원(www.lgeir.com), 한국은행 온라인 경제교육(www.bokeducation.or.kr) 등의 홈페이지는 경제에 관한 안목을 넓혀줄 것이며,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양한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데, 카페 부자공부(cafe.naver.com/nolireland), 블로그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blog.naver.com/mosfnet)사이트를 추천하고 싶다.

다음은 후자의 유형, 들음으로써 정보를 습득하

는 경우다. 예전에는 주로 TV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나 강연이 경제나 금융을 접하는 주요 정보원이었지만 요즘은 유튜브가 대체다. 과히 지식의 창고라 불릴만하다. 이현우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문학으로 창업한 남자’(www.youtube.com/channel/UCQOK-47mLv1toxx9Imzclw)는 경제 문외한까지 포용하는 쉬운 설명으로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어 추천하고 싶으며, 각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금융 상식과 재테크를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원이다. 또한 스마트폰 앱의 팟빵(podbbang)도 좋은 경제 지식 정보원인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역시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금융 상식을 제공하고 있다.

- 슬기로운 금융 생활로 얻는 것

모든 지식 습득에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보 과잉 시대라 취사선택이 늘 어렵다. 그리고 일관성있고 끈기있게 지식을 얻는 것도 어렵다. 그래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어렵게만 보이던 경제, 금융 용어와 시장에 대한 해석이 점점 쉬워질 것이고, 신문의 경제란은 이제 제일 재미있는 섹션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해 고객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피해자가 거듭 나타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슬기로운 금융 생활로 안전한 금융 투자는 물론 돈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금융 리터러시(Literacy)란?**
경제 및 금융을 이해하는 능력

김민호 기자

전국 첫 전원도시특구로 지정된 홍천군 중심지

홍천읍은 44번국도와 45번국도가 교차하고 화양강이 홍천읍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형성된 읍이다. 홍천읍은 인구 35,040명 면적 107.4km²이다. 홍천읍은 13개 법정리와 모든 행정, 교육, 금융, 교통의 중심지이다.

북쪽에는 석화산, 두개비산 동쪽에는 공작산, 남쪽에는 남산, 서쪽에는 팔봉산 재골터널이 있다. 홍천읍에는 각종 위락시설과 촌락이 형성된 시가지가 있다. 그 중에 특이할만한 것은 홍천터미널은 교통의 중심지인 홍천읍의 자랑이며 홍천군 지자체장인 군수는 철도망이 들어오는 것을 제일목표로 세웠다.

또한 일제시대부터 있던 홍천농업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농업'자가 붙은 학교로는 홍천농업고등학교가 유일하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낱고ړ다 할지라도 농산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 고장의 대학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청 앞에는 사지석탑이 있고 무늬는 사자와 연꽃모양으로 되어 있어 옛날 성을 지키는 관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외각에 퍼져 있는 것을 군청 앞에도 모았다.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은 79호, 홍천 패석리 사사자 삼층석탑은 540호로 명명하였다. 홍천읍에 위치한 두개비산은 소나무가 울창하여 삼림욕장으로 홍천군민의 힐링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등산로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



◇군청앞 삼층석탑과 홍천 패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마지기길 쉼터.(사진 왼쪽부터)

고 있다. 홍천의 겨울축제인 '홍천강 뽕뽕축제'는 관광객이 매년 많이 다니다가 홍천의 특산물인 홍천 수라쌀, 잣, 인삼, 오미자, 찰옥수수, 사과는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홍천 5일장이 매월 1일과 6일에 열리며 홍천농민은 물건을 팔아서 좋고 수많은 관광객은 질 좋은 농산물을 사가므로 홍천인의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 외 종교시설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유

명하다. 전국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군인 홍천에 아직 철도망이 없고 대학이 없어 앞으로 강원도에서 시 후보지로 홍천읍을 제일로 뽑아 앞으로의 비전은 밝다.

전국에서 최초로 전원도시 특구로 제정된 홍천읍은 군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광명 기자



스포츠

새 체육회장 학교체육 활성화, 읍면 체육대회 개최해야

군 단위 선출직 체육회장 선거는 광복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로 군수의 경우 임명직이 없어지고 선출직 군수가 된 후 체육회장은 겸직을 했고 경우에 따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류되면서 군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맡았고 실무부회장은 순수 민간인이 맡아서 수십년 동안 홍천군 체육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올 해 시행하는 선출직 선거에 군체육회장에 뜻을 둔 몇 분이 회장에 출마했다. 그동안 강원도민체전을 2회나 치렀고 전국 규모의 큼직한 당일 경기도 많이 치렀다.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홍천군 체육의 수장으로서 훌륭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체육을 좋아하고 아끼는 군민의 한 사람으

로서 새 체육회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홍천군의 체육에 밑거름이 될 학교체육에서 힘써주길 바란다.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 간의 체육을 활성화해서 성인이 되더라도 엘리트와 생활체육에 모두 합당한 건전한 체육인의 육성이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창설 운영 같은 것이다.

두 번째로 매년 가을쯤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면 한다.

지역주민 체육대회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새로운 가족참여 체육대회를 통해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

세 번째는 홍천군 출신 국제선수의 위상을 높이고 후배 양성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올림픽 역도에서 금메달을 딴 사재혁 선수와 스페인 세계육상대회(높이뛰기)에서

입상하고 필리핀 마닐라 세계유니버시티대회에서 우승한 이광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장우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재능기부 프로그램, 후배육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새로 선출되는 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홍천군 체육발전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홍천군민의 대변자가 됐으면 한다.

2019년의 체육발전을 위해 힘 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드리며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에 회장을 비롯하여 체육인들의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문화예술

경자년 새해 김기중 예총회장 인터뷰

“문화예술공연 다양화, 예술인 지원 최선 다하겠다”

군민 화합 1000인 홍천페스티벌 준비 심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문화예술인에게 감사

작금의 시대는 문화 예술이 그 나라와 지방의 삶의 척도가 되고 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활발하게 잘 발전하며 민도가 높다. 홍천도 어느 지방 못지않게 문화예술의 각 장르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군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유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홍천 예총은 6개 지부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천군 문화예술의 총사령탑인 예총을 찾아 회장님과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회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예,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예술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예술인 및 홍천군민께 먼저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총 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돌이 돌아옵니다. 새해 1월 1일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망을 빌며 다짐을 하였습니다. 태양이 매일 아침 떠오르듯 예총도 매일매일 군민들께 다가가 문화예술이 막마르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예총을 알아가는 해였다면 올해는 예총이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해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은 어떤 장르의 예술에 조예가 깊나요?

저는 국악으로 예총에 입문하였습니다. 국악은 굉장히 어려운 장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중년이 넘어서야 국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야죠. 그러나 저는 중년이 되어서 국악을 접했으니 더욱더 어렵겠지만 소리와 흥이 저를 빠져들게 합니다.

- 회장님 선출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저는 군문에 입문하여 34년이라는 긴 시간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으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55세에 정년 퇴임을 하여 사회에 나와 국민생활체육 및 홍천무궁화라이온스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행사를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특히 기



◇ 홍천예총 김기중 회장.

억에 남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기억에 남는 행사를 꼽으라면 단연코 1000인 홍천 Festival입니다. 과연 1000명의 연주자가 홍천에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초반의 심정이었습니다만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감동과 희열이 솟구쳤습니다. 이에 힘입어 축제 결과를 120% 끌어올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군과 사회단체의 지원이 합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 예총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만족하고 있는지요?

제가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하시니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총은 홍천군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만 문화예술은 한순간에 결과를 내는 분야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과 뇌리에 내려앉아 감동과 평안함이 전해지는 예술입니다. 예총을 위해 헌신과 희생으로 먼저 길을 열어주신 전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예총을 위해 꿈이 많을 텐데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첫째로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찾아내어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문화예술 공연이 여러 사회단체나 재단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걸 보면서 예술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어 풍요로운 문화예술공연을 예총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을 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스포츠 강국을 위하여 체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민 1인당 GNP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였기에 문화예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문화예술이 빠진 국민의 삶은 조화로운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행복이 가득하고 안정된 삶의 근본에는 문화예술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되며 유치부에서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튼실한 문화예술이 나라의 경제성장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에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 올해 가장 역점 사업으로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물론 1000인홍천 Festival입니다. 올해는 5월 초 나물축제와 더불어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시장 활성화 그리고 연주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Festival은 단순한 음악공연이 아닙니다. 홍천군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계획하고 준비하는 Festival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1000인홍천 Festival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의미 깊은 행사입니다. 많은 응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을 위해 말씀을 해 주신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의 완성에는 모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이겨내고 넘쳐나는 문화예술의 홍수 속에 당당히 서 있는 그분들께 진심의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때로는 세월을 역행하여 순수 예술을 고집하여 배가 고프기도 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모여 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가 오만과 편견을 뒤로하고 배려와 이해가 뭉게뭉게 번져나는 사회가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학인으로 평소 잘 아는 사이지만 만날 때마다 활짝 웃는 모습은 다정한 친구 같은 친밀함에 편하고 반갑다. 그의 인간성이 예총을 건전하고 활기차게 이끌어 가는 비결이 된다고 느꼈다. 다소 그동안 예총이 내우외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돋보인다.

앞으로 예총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홍천 예술의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김정현 기자



자원봉사단체 소개

홍천의 힘과 번영의 바탕 여성 농업인들

150여명 회원 전문교육 이수 홍천농업 발전 선도

여성 특유 섬세함으로 남성보다 뛰어난 성과 자랑
노인 급식, 우리 음식 만들기 등 정기 봉사활동도



◇ 여성농업인 연합회 민선기 회장.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홍천군연합회장 민선기씨를 만나서 홍천 여성 농업인들의 삶과 애환을 들어 보았다.

민선기 회장은 청주가 고향으로 홍천 출신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두촌면에서 살고 있다.

인삼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성 농업인들의 대모 역할을 하면서 홍천군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봉사단을 이끈다.

민선기 회장은 면회장 6년을 거쳐 군회장으로 5년 차이다. 1년 후에는 12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하는 베테랑 회장이다. 여성 농업인 홍천군연합회는 농사하는 여성들의 모임이지만 남편이 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내들이다. 아내만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들은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작물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전문농업 후계자들을 말한다.

남성보다 강한 여성농업인들

농업인이라고 하면 남성들의 분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들이 못하는 섬세한 부분을 잘 감당하므로

여성 농업인들이 더 뛰어난 분야도 있다고 한다.

여성 농업회원 수는 약 150명이다. 이들은 연 수익 면에서나 소유농지가 큰 대농들의 모임이다. 일반 여성 농업인들의 리더의 역할도 하며 일반 농업인들의 멘토 역할도 한다.

여성 농업인들 간의 교류와 상호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속감과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홍천군의 특산물지원금 제도가 있어서 농정과 심의를 거쳐 사과, 인삼, 고추, 호박 옥수수 고냉지 배추 등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한다.

이런 농사 과정에는 여성들의 섬세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남성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전문 여성 농업인들이다.

그러나 농촌의 인력은 부족하며 농업인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족처럼 일손을 돕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회원들은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먼 타국에 가서 일하던 때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잘하며 보살피 준다고 한다.

* **멧돼지에게 빼앗기는 옥수수를 지키는 방법** *

멧돼지는 옥수수를 수확하려고 밭으로 나간 농부를 아연실색하게 한다. 수확 시기를 정확히 아는 멧돼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수확 시기를 며칠 앞둔 즈음에 농부가 입었던 옷을 밭에 걸어두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냄새에 민감한 멧돼지는 밭에서 농부가 지키고 있다고 알고 옥수수 밭에 접근을 못 한다고 하니 이 방법을 써보는 것도 한 방법일 듯.

바쁘지만 짬을 내서 봉사할 때 얻는 기쁨

대외적인 활동 분야는 쌀 소비 촉진대회, 김치 만들기대회, 다문화가정 음식 만들기대회, 우리 음식 만들기대회 등을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 급식 봉사, 노인복지관 급식 봉사, 각종 축제 때는 인삼 튀김 등 음식 판매를 하여 수익금을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한다. 도 단위의 김장 봉사, 연탄 나누기 봉사와 품물시장의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서 수익금을 기탁 한다.

바쁜 농촌의 시간을 쪼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람을 찾고 회원 간의 결속력을 다진다. 이런 모습은 일하는 여성, 봉사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 활기찬 농촌을 나타내기도 한다.

회원들의 월례회와 번개모임

임원 14명의 정기모임은 농번기가 아닐 때는 월 1~2회 이루어진다고 한다.

농사의 특성상 각자 작물이 다르지만 서로 정보 교환과 체험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녀들의 모임은 만남이 휴식이 되고 여성들의 수다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과 활력을 찾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농사할 때 얻은 나만의 노하우나 어떤 농법에 대한 지식도 교환하며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도 함께 하므로 유익한 시간이다.

농사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동식물들의 피해가 극심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애써 지은 농작물이 자연재해나 동물들로 인해 망쳐지는 것은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돌려주는 섭리가 있으므로 실망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준다는 진리가 숨어 있다고 했다.

김순화 기자



실버소식통

노년을 위한 맞춤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장수노인수당** :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지급
- **경로식당 운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순화교육 실시, 질환 관련 안심경로당 운영
- **노인 안(眼)검진 사업** : 어르신 시각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 도모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 **노인일자리사업** :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

- **경로당 지원** : 경로식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도모

- **노인건강검진 실시** :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 도움

- **강원건강안마서비스**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안마서비스 제공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조기발견치료·등록관리 함으로써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 : [걷고 싶은 거리] 환경조성, Walking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위킹강의 및 실습, 계단걷기 홍보),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개최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어린이 한방교실, 관절염 아쿠아로빅교실 운영, 한방운동교실 운영(경로당 등), 면역력 증강을 위한 힐링캠프, 한방차

-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원격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주 1회)

- **예방접종 사업** :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진행(일부는 유료로 예방접종 가능)

출처: 홍천군청 맞춤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독자기고



이 세 현

전 춘천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1453년 계유정난으로 왕권을 완전히 장악한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으로 등극한다. 자신에게 반대하던 왕족들을 유배시키고 눈에 거슬리는 신하들은 모두 제거했다. 때문에 조정 대신 누구도 그를 비판하지 못했다. 단종에게 왕위를 찬탈한 그가 조선 제7대왕 세조다. 그의 나이가 39세였다.

세조는 단종을 상왕에 앉힌 이듬해 성삼문 등 사육신으로 불리는 집현전 학자출신들의 단종복위 계획이 발각되자 단종을 노산군으

로 강봉, 영월에 유배시킨다. 또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그를 사사시키고 단종도 죽였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차례로 제거한 뒤 왕권강화 정책에 착수했다. 이른바 강권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내각제인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제제를 단행했

다. 집현전을 폐지하고 정치문제를 토론·대화하는 경연을 없앴다. 이 때문에 국정을 건의·규제하던 대간의 기능이 약화됐다. 반면 왕명을 출납하던 비서실 승정원 기능이 강화, 국가의 모든 중대사무도 함께 관장했다.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이 이 모습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조는 왕권강화책으로 백성 동향과악을 위해 호패법을 복원했다. 오늘

날 민간인 사찰과 유사한 행태다. 이처럼 세조는 관제개편과 관리강 확립으로 민간생활의 편리를 꾀했으나 정치운영은 문치가 아닌 강권으로, 인재등용도 실력이 아닌 측근 중심 인사로 일관해 병폐가 심각했다.

승정원 중심으로 국사를 운영했는데 이를 그의 심복 정난공신들

이 장악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 역시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육조판서들은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에도 봉직하고 있었다.

오늘날 국무위원이면서 국회의원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행태다.

공신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도 부원군 자격으로 정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 우리 정치형태와 너무나도 닮았다.

문치주의자 선조는 1567년 16세에 조선 14대왕으로 등극한다. 선조는 가장 먼저 과거제를 개편, 현량과를 다시 실시했다.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조광조에게 영의정을 증직하고 억울하게 화를 당한 사람들을 신원했다. 반면 그들에게 화를 입힌 남곤 등의 관직은 추탈하고 을사사화를 일으킨 윤원형 등을 삭훈했다. 이로써 민심은 안정되고 조정은 평화를 되찾았다.

필자가 복지관 봉사를 하면서 어느 노인 분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내가 팔십이 넘었는데 평생 여야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렇게 합의봤노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말씀이었다. 현 정치를 바라보는 한 노인의 절규이자 민초들의 마음 표현이다.

경자년 새해가 밝은지 반 개월이 넘어간다.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행태에 지칠대로 지쳤다. 제발 국민들의 괴로회복제가 될 여야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강권정치와 문치주의

하루 시 한 편



겨울 산길에서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덮인 산길 위에
발자국 점선처럼
끊어질 듯 이어간다
고독한 순례자 되어
얻는 것 무엇인가

발자국 소리에도
깊은 잠 놀라 깰라
나무들 묵언 수행
덩달아 빠져들 때
자연은
벌거벗은 채 맨몸으로 보여준다

마음은 갈대 같아
이리저리 휘둘리지
불붙인 심지 같이
자신을 불태우며
жат나무
눈 터는 산길 버리고 온 빈 마음

김 정 현



시작노트

겨울 산의 눈길은 그야말로 잡티 하나 섞이지 않은 백상지처럼 하얀색의 순수가 펼쳐진다. 아무도 없는 산길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발자국을 희디흰 눈으로 지워놓고 있었다. 미답의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걷는다. 도를 닦는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걷는데도 뒤돌아보면 뽀뽀뽀 발자국이 어지럽다. 조심스러운 발자국은 동안거에 든 나무들의 잠이 깰까 근심이 앞선다. 이래저래 마음은 바람에 서걱이는 갈대 같지만, 마음의 심연에 사유의 감성을 끌어내 어두운 정신세계에 불을 밝힌다.

жат나무 가지가 무거운 눈을 털며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며 빈 마음으로 돌아왔다.